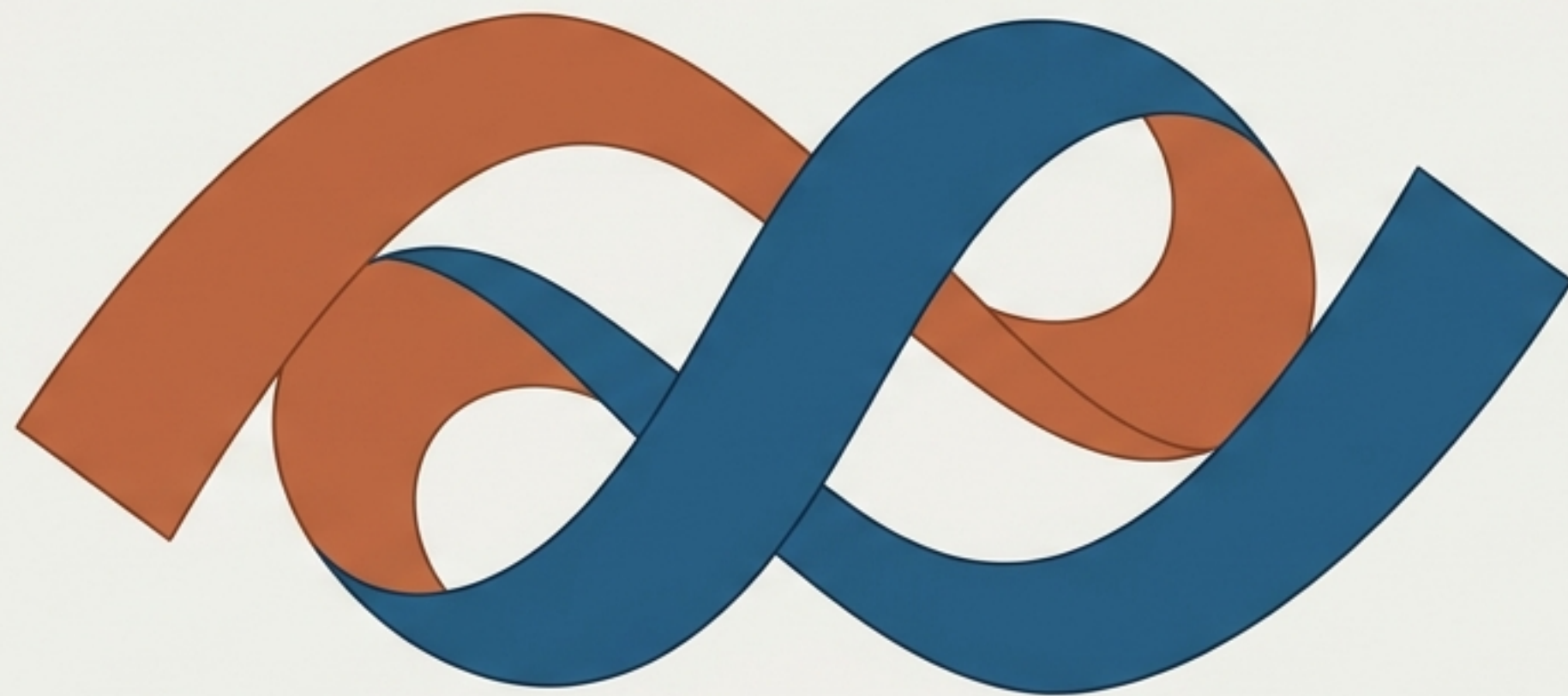


2026.09.25 글로벌 시황 야간 브리핑



# 거시적 압박과 AI 모멘텀의 교차로

---

유가·금리 동반 상승 속 반도체 수급 재편과 단기 대응 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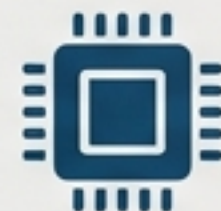
---

# 핵심 관전 포인트: 팽팽한 줄다리기



## 인플레이션 리스크 재점화

WTI \$92.99 돌파 (후티 반군 공격) 및 美 국채 10년물 5.192% 급등.  
FOMC의 매파적 기조가 글로벌 증시의 최대 하방 압력으로 작용.



## AI/반도체 패권 (1.2조 달러)

골드만삭스, 내년 하이퍼스케일러 AI 투자 1.2조 달러 전망.  
금리 부담을 상쇄하는 강력한 펀더멘털로 나스닥 하방 방어.



## 국내 수급 주체 재편

추석 직후 외국인(451만주)·기관(134만주) 순매수 전환.  
반도체 소부장 및 커버드콜 ETF 중심의 뚜렷한 수급 유입.



## 전략적 포지셔닝

KOSPI 연말 8,400 목표 유지. 유동성 장세 방어(보험/통신)와  
대형 반도체주 분할 매수의 투트랙(Two-Track) 접근.

# FICC 동향: 중동 리스크와 금리 발작



# 글로벌 중시: 채권 매도세에도 버티는 시장

## 미국: 강보합 방어

S&P 7,704 / 나스닥 26,939

국채 금리 급등에도 AI 모멘텀이 하방 지지. 루멘 테크놀로지스 이전 상장 등 AI 기대감 지속. 씨티(Citi) 조정 시 매수 권고.

## 아시아: 차별화 장세

닛케이 +1.30% / 항셍 -1.01%

일본: 엔화 약세 기반 수출주 강세 리드.  
중국/홍콩: 64조 위안 은행 만기 도래 우려 및 미중 회담 안도감 부재로 하락.

## 유럽: 방산주 주도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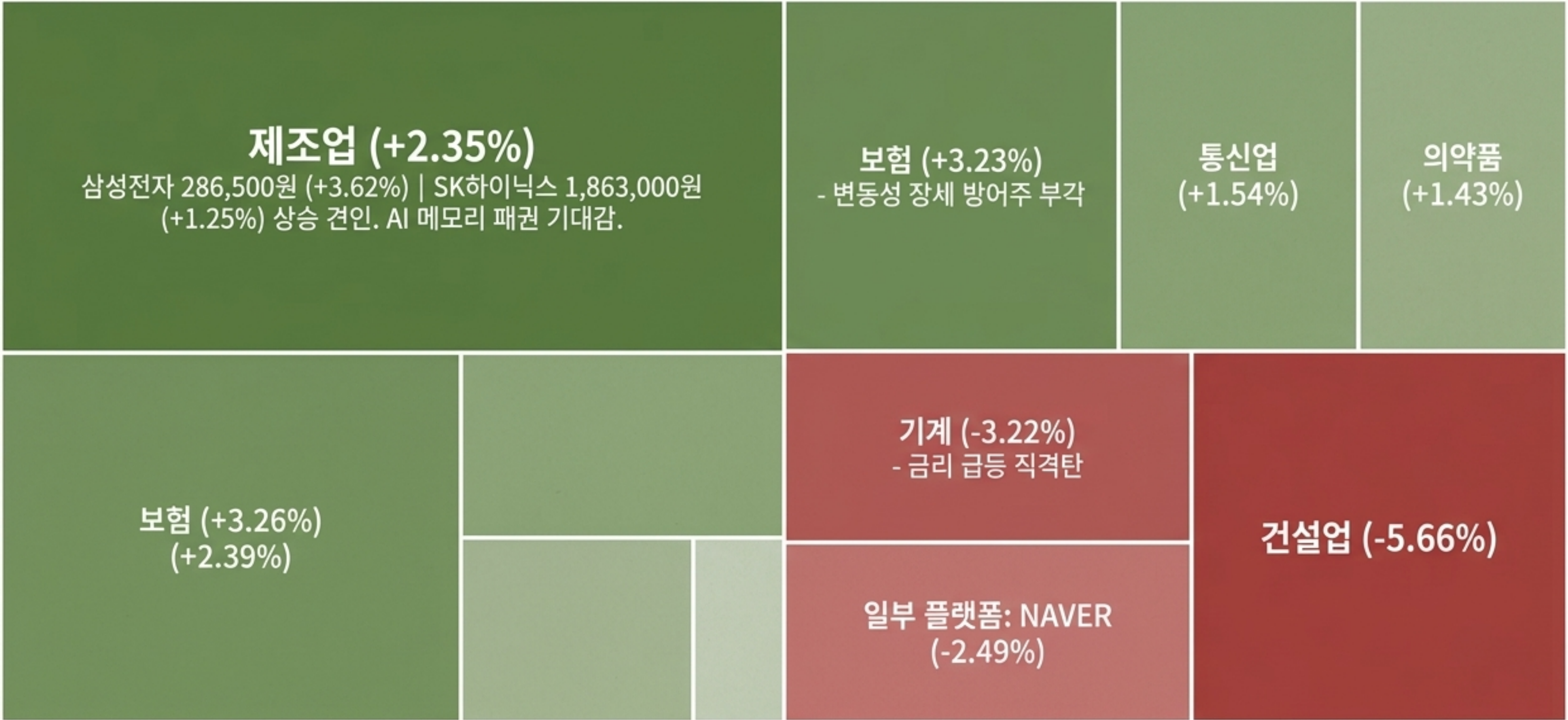
DAX 24,998 / FTSE 10,556

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 및 방산 섹터 강세로 0.8%대 상승 마감.

# 자금 이동: 서학개미와 외국인의 엇갈린 행보



# 국내 증시 섹터 분석: 제조업/보험 강세 vs 건설 약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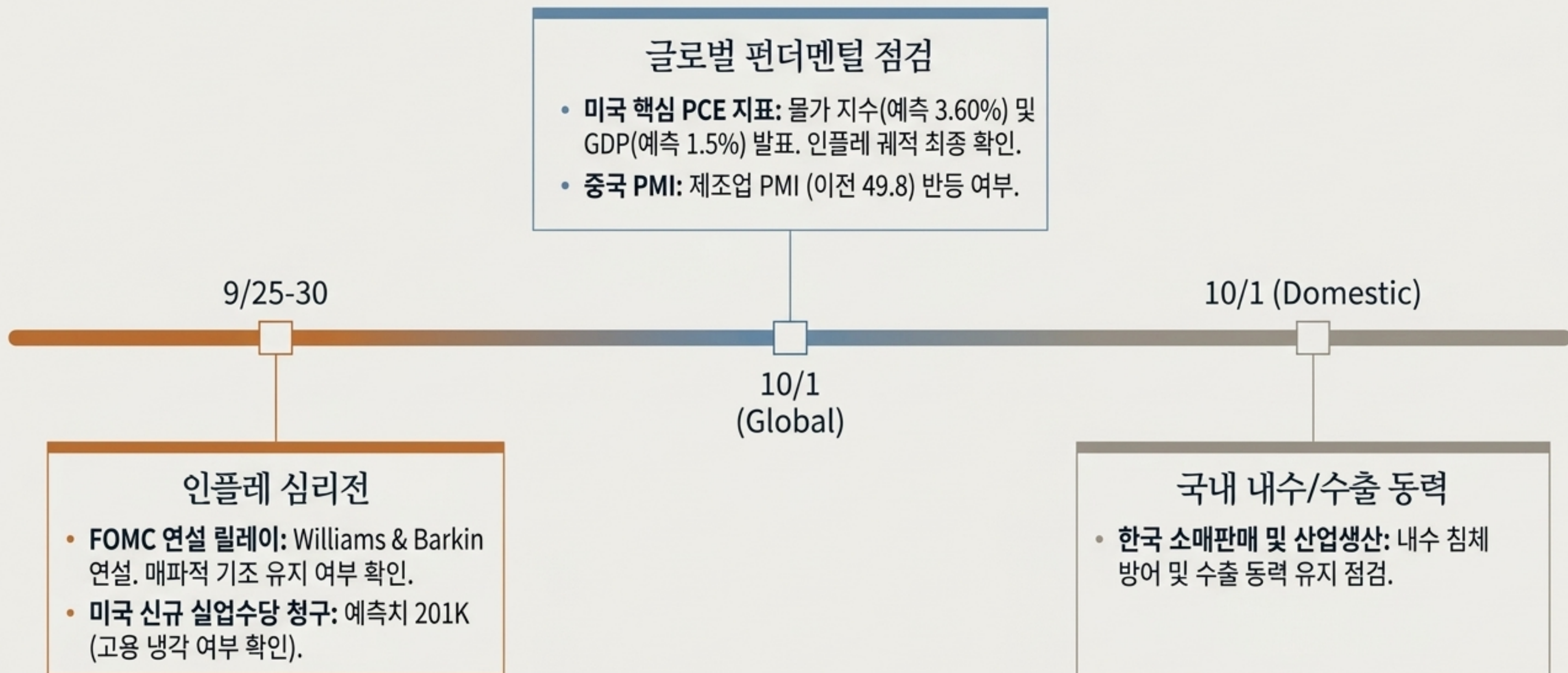


리스크 노트: 코스닥 한계기업 주의보 - 시총 기준 강화로 코스닥 8개 종목 퇴출. 추가 상폐 우려 상존.

# 핵심 진단: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두 가지 힘

|              | 거시 경제 압박<br>(Macro Headwinds)  | 구조적 성장 모멘텀<br>(Structural Tailwinds)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핵심 트리거       |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<br>& FOMC 매파 기조    | 하이퍼스케일러 AI 설비투자<br>(CapEx) 사이클       |
| 주요 지표        | WTI 92.99\$ / 국채 10년물 5.19%    | 골드만삭스 AI 투자 1.2조 달러 전망               |
| 시장 영향        | 인플레이션 우려 재점화,<br>글로벌 채권 매도세 심화 | 높은 금리 부담을 상쇄하는 펀더멘털,<br>지수 하방 경직성 제공 |
| 전술적<br>수혜 자산 | 금, 단기 방어주 (보험)                 | 대형 반도체, AI 인프라 관련주<br>(소부장)          |

# 주간 증시 캘린더: 금리 방향성을 결정지을 이벤트



# 단기 대응 전략: 변동성 방어와 구조적 성장 매수



## The Shield (지수 방어적 접근)

- 유가 및 금리 동반 상승으로 10월까지 단기 변동성 확대 불가피.
- 투자심리 부진에 대비하여 포트폴리오 내 변동성 방어 섹터(보험/통신 등) 비중 일부 유지.



## The Spear (반도체 대형주 중심 비중 확대)

- AI 모멘텀은 거시적 금리 부담을 넘어설 유일한 구조적 테마.
-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집중되는 반도체 대형주(삼성전자, SK하이닉스) 및 핵심 소부장 종목의 조정 시 분할 매수.



**Ultimate Target:** 연말 KOSPI 8,400 도달을 겨냥한 저점 매수 기회 활용.